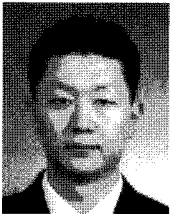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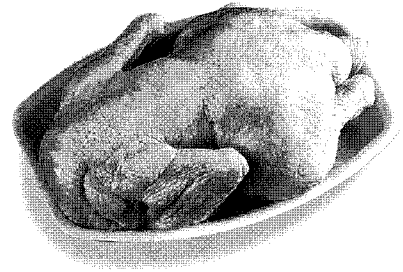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박진호 대표
메리트무역

8월 수입계육 시장은 중국산 닭고기 수입과 조용한 재고 소진으로 지나가는 한 달이었다. 미국산과 태국산 가격은 꾸준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9월과 10월 오퍼가격이 국내 유통가격보다 다소 높아 전반적인 수입회사들은 큰 물량을 구매 할 수 없었고, 국내 재고 또한 소진되고 있다.

태국

8월 집중적인 폭우와 소극적인 구매로 인해서 태국의 내수거래 가격이 약 10% 정도 하락했지만, 지난달 기고 내용처럼 공급량의 제한 때문에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8월 5주차 정육 (Bone less Leg Meat)의 가격은 일본과 중국시장의 수급량에 따라 변동될 조짐이 있고, 사이즈된 미들윙의 경우 톤당 2,000~2,100불선이고 사이즈된 윙봉의 경우 1,550~1,600불 선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태국산 통날개의 경우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부분날개로 판매되고 있어서 향후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콩

계속 발생하는 가금육 바이러스 때문에 홍콩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가금육 바이러스 진원지인 광둥지역과 지리상으로 근접되어 있고, 또한 이 지역



은 냉장이나 냉동 닭고기보다는 바로 도계한 후레쉬 닭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홍콩에는 이러한 신선 닭고기 소매업체가 500개 이상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미국

8월 5주차 오퍼가격은 왕장각(Jumbo legs)의 경우 톤당 900불대 후반이며, 중장각의 경우 1,000불대 초반을 이루고 있다. 중국산 가금육이 일본으로 수출 재개됨에 따라 미약하게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수입 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 동안 닭고기 생산업자들은 작년 동 기간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브로일러와 병아리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쿼터제와 사스로 인한 홍콩의 수입량 감소 등의 이유로 중대한 시안에 봉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반해 미국의 가금육 수출회사들은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수출시장을 개척한 상태여서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상태이다.

중국

지난 8월 25일부터 중국업체들이 일본으로 가금육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H5N1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은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90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8월초 일본의 검역관들이 중국을 방문

한 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국에서도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업체만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상당히 신중해져 있다. 8월 선적으로 몇 컨테이너의 초도물량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선적 기일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일본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재개로 인해서 일본의 바이어들은 태국산 닭고기 구매를 일시 정지한 상태이다.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일본은 뼈가 있는 부위는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들윙과 윙봉 그리고 윙팁과 같은 부분날개만을 구매하고 있다.

일본은 연간 500,000~600,000톤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약 250,000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신속한 해상운송을 이용해서 중국산 닭고기 수급에 주력할 것이며, 4/4분기 태국산 정육구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

지난 8월 25일부터 일본은 뼈를 제외한 중국산 가금육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였던 일본 수출환경이 다소 어두워졌지만 가금육 시장환경은 늘 반전되고, 반복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꾸준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 대량의 게릴라 수출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C

• 문의 : merittrading@hanafos.com